

# 안중범·정호성 다음은 대통령? ... 검찰 기류 급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밤늦게 긴급체포되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물론 여론 일각에서도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게 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 최순실씨와 공모해 50여개 기업으로

## 정치권 수사 촉구 목소리

### 분노한 여론도 악화일로

### 서면조사 등 방법 놓고 고심

부터 774억원의 자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가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연 박 대통령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의문점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참모로서 미르재단과 K스프츠재단이 무난히 설립,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이어 안 전 수석도 체포되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서 참여연대가 예정대로 4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고발한다면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이는 안 전 수석을 둘러싼 검찰 조사와 별개로 악화일로를 걷는 여론을 감안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 진행 결과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조사 불가' 방침이 분명했던 지난주와는 다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수사 흐름이나 국회와 정부 등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결정하더라도 그 방식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된 헌법 제84조를 '수사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유서날랜츠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2012

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대통령 과거 조사 전례를 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인지, 밝힌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검찰이 현직 대통령 조사를 전격 결정하게 될 것인지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 박 대통령 스스로 수사방기를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준 “박대통령 경제·사회 정책 모두 맡겨” 야권 “불통 총리...모든 얘기 아무 의미 없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정국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인준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정하는 등 초강경 태세여서 그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지난날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총리직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고,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설적인 협의기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 공급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대통령이 완전히 유고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통찰은 저한테 맡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다 의미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통 총리’거나, 나머지 말씀이 다 의미없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내정자가 ‘노무현정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 분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그런 게 아닌지 같은데?”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야3당 원내대표가 이미 인물의 됨됨이나 자격, 이분의 주장과 무관하게 인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질타 말했다.

국민의당 손준주 수석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대위의 광대일 뿐”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내정자가 애써 자신의 인선경위를 설명하는 모습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국민전환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70.4% “대통령 수사해야” 지지도는 10.9%로 급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사로 비리 사태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수사에 반대한다’는 응답(21.2%)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11월 1주차 주중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8.1%포인트 급락한 10.9%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1.6%에 불과했고, 30대(3.1%)와 40대(7.7%) 역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에서 지난주보다 19.0%포인트 하락한 14.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 프로필

#### DJ 비서실장 지내...두 대통령 보좌 초유의 기록

##### 한광옥 비서실장

전두환 5공화국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맡는 등 출근 야당의 길을 걸어왔던 동교동계 핵심 인사로 1999년 11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현정사에서 다른 두 명의 대통령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11대대 서울 관악구에서 민한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나 국회에서 5·17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강도높게 요구한 인연으로 동교동계 캠프에 합류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DJP 후보 단일화’ 협상의 주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신중하고 일이 무거워 여의도 정치인 시절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당내외의 밀사역을 도맡았다는 평가이다.

스스로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고 여야 구분 없이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격의없는 스타일로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평이다.

▲전주(74) ▲서울대 영문과 ▲제11·13·14·15대 국회의원 ▲국민회의 부총재 ▲제1기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상임고문 ▲새누리당 제18대 중앙선대위 100% 대한민국대통령합원회 수석부위원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령합원위원장

#### 기자 출신...박근혜 대선 캠프 특보 지낸 ‘원조 친박’

##### 허원제 정무수석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특히 최근 임명된 배성태 청와대 홍보수석과는 KBS와 SBS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 관계이며,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도 SBS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특보 겸 방송단장을 지냈으나 이후 이명박 후보로 확정되면서 후보 방송특보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18대 대선에서 부산진갑 지역구에

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실패했다. 국회의원 재임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신문진흥법 개정안’ 등을 주도해 관심을 끌었다.

부인 강영희 씨와 사이에 2남. ▲부산(65) ▲부산고 ▲서울대 물리학과·정치학과 ▲국세신문 기자 ▲경향신문 기자 ▲KBS 기자 ▲SBS 정치부 차장·독일특파원 ▲18대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통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베트남/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베트남/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편 **699,000~**

[통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편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편 **899,000~**

[통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편 **999,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관광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관광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과 및 부가비용 유류할증료 포함 ●여행사 계약사(해소구절)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항공기종, 좌석, 객실, 각종 비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